

이슈브리프 349호  
(2022. 4.25)

##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 제349호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



## 국문초록

4월 1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강대강으로 치달고 있는 북미관계의 한가운데 점에 있다. 그만큼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도발이 농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54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변천과정을 보면 지속성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대응, 한미의 전쟁수행능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라는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 측면은 북한 도발의 다양화 및 비핵화 유인 제공, 전작권전환 준비, 한국군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명칭, 규모, 성격 등이 변화되어왔다.

즉,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대비태세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성격과 내용면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 연합훈련의 의미는 에이브러햄 링컨 향모로 대표되는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전작권전환 준비 등의 사항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의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의 교훈 반영과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구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합훈련의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화 재개만을 위한 유화책으로 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계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대비태세 능력 강화를 위해 타우방국과의 연합훈련 시행, 과학화된 연습훈련 체계 구축 등 내실있는 연합훈련의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어:** 한미 연합훈련,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 대비태세, 확장억제, 전작권전환

합참은 4월 12일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을 시작으로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요인들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시기와 성격 면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미 연합훈련은 과거에도 유사한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연합훈련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변천과정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엇 때문에 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성과 변화

최초의 연합훈련은 '54년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에 대비한 포커스렌즈(Focus Lens) 명칭의 군사연습으로 유엔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61년에는 한국 단독의 비정규전 훈련이었던 독수리연습이 최초로 실시되었고, 무장공비 사건과 1.21 사태를 계기로 '75년 한미 연합 비정규전 훈련인 독수리훈련(FE, Foal Eagle)으로 통합하였다.

'76년에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돌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TS, Team Sprit)이 시작되었다. TS는 '91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배경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92년에는 미 실시 되었으나, '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훈련이 재개되었다. 이후 북한이 핵사찰 수용에 합의하자 '94년에 다시 재중단 되었고, 연합전시증원연습훈련(RSOI)과 한국군 군단급 실기동훈련인 호국훈련으로 분리 대체되었다. 또한 동년에는 주한미군 철수, 8.18 도끼 만행 사건과 땅굴 발견을 계기로 한국군 단독의 전면전 대비 지휘소 연습인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를 통합하여 을지포커스렌즈(UFL, Ulchi Focus Lens)라는 연합훈련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02년부터 북핵 개발 가속화 및 1차 연평해전(‘99) 등을 고려하여 RSOI와 FE 연습을 통합하여 매년 3월에 실시하였고, ‘08년에는 전작권 전환기 연합방위태세 준비차원에서 RSOI/FE는 키리졸브 훈련/독수리훈련(KR, Key Resolve/FE)으로 UFL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Ulchi Freedom Guardian)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KR과 UFG는 북한의 전면전을 상정해 전쟁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워게임을 이용한 지휘소연습(CPX)이었고, FE는 한미 야외기동훈련으로 한달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후 ‘19년에 북한 비핵화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협의하에 KR 연습과 UFG 연습 명칭을 각각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통일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한미 연합훈련 변천과정을 보면 지속성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대응, 한미의 전쟁수행능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라는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변화 측면으로는 북한 도발의 다양화 및 비핵화 유인 제공, 전작권 전환 준비, 한국군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습훈련 명칭, 규모, 성격 등이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 한미 연합훈련: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삼중 요인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관계, 한미관계, 한국군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즉, 이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훈련의 축소·확대, 중단·재실시, 명칭 변경, 한국군 단독에서 연합훈련으로 통합 등 성격과 내용에 있어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4월 실시 중인 연합훈련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북관계 측면에서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고 북한은 계기시마다 중단을 요구하며 연합훈련 실시에 민감한 반응을 표출해 왔다. 예를 들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월 3일 서육 국방부 장관의 ‘미사일 발사 징후시 원점타격 발언’에 대한 막말 담화를 내놓은데 이어 5일에는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오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합훈련 이틀 전인 4월 1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핵전투력’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친 반응은 강대강으로 전환중인 북미관계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도발에 나서고 있고, 미국도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대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고, CVID가 미국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대북압박을 경고하였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도 제재 강화와 병행하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음에도 그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나, 그 반대일 경우 한미의 대응태세가 완벽하거나 제재가 강화되더라도 도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도발은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기회적 인식과의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4-5월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집중력 분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을 고려할 경우, 북한이 기회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25), 대통령 취임식(5.10)과 한미정상회담(예정)을 전후로 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으로 그 강도는 전략적 필요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핵전투력 강조’와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전술 핵폭탄 실험과 단거리 탄도탄 및 재래식 도발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소형 핵폭탄 실험을 제외하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전략적 도발의 실패로 한국의 새정부나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기보다는 간보기식이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수준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핵무력에 의한 공포 분위기 조성, 전방 지역에 대한 국지적 공격이나 서해 NLL상에서의 도발로 9.19 합의에 대한 새 정부의 딜레마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이렇게 치열한 남북, 북미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한가운데 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훈련이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 △예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어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훈련 그 자체로 인한 북한의 반발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21년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남북통신 연락선 재차단, 저장도 군사훈련 수준의 대응에 그친 바 있다. 문제는 연합훈련을 핑계로 도발의 정당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북한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연합훈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둘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4월 연합훈련의 대표적 의미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전작권전환 준비를 들 수 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해군의 핵추진 항모인 링컨호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시기에 동해에 진입하였다. 미항모 진입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3척의 항모가 전개한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비록 이 전력들이 이번 연합훈련과는 별개로 단독훈련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향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재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전환을 위한 중요 검증 절차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미포함됨으로써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 평가를 통해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한미가 승인하면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 비록 이번 훈련에서 FOC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략, 군수, 지휘체계 등 다방면에서 작계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의 파악을 통해 전작권전환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군의 대비태세 능력 강화차원에서 보면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군의 초기 전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준비 부족과 군수보급 문제를 들고 있으나, 훈련의 부족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는 당연한 계절적 현상으로 기갑부대들의 이동시 필수적으로 진흙 탈출용 장비를 달고 다니거나 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사태 이후부터 나토와 군사훈련을 진행해오면서 기량과 전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현장에서 유연한 판단을 우선시하는 소규모부대의 편제방식, 작전, 보급 등의 전투능력과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쉽게 소화하는 능력 등은 모두 서방국과의 군사훈련을 통해 얻어진 능력들이었다.

한국군은 그동안 다양한 연습훈련을 거쳐오면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신장되었다. 그러나 북한군 또한 핵을 포함한 다양한 대량살상무기와 신무기체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도 이번 훈련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

## 향후 한미 연합훈련 추진 방향

한미 연합훈련은 1954년 이래로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였고,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국군의 대비태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 한미 연합훈련의 추진도 이에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다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합훈련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응수단이 될 수도 있고,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팀스피리트 중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화 재개만을 위한 유화책으로 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협상 여건의 조성을 위한 연합훈련의 성격 규정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합훈련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시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계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확장억제 노력은 주로 개념적이고 회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되어 왔음에 따라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전략자산의 전개와 같은 가시적인 확장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 작계 5015가 북핵·미사일 위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반영한 새로운 작계 수립과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도 중요

하다. 더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연합훈련을 통해 그 조건의 성숙도를 꼼꼼하게 따져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한국군의 대비태세 능력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연합·합동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교훈 반영 △그 동안 연합훈련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의 개선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학화된 연습훈련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21년 8월에 동해에서 시행된 한·영 연합훈련처럼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습훈련이나 제3국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연합작전능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 속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력 강화와 우리의 자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병행하여 연합훈련의 본질적 목적인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훈련 또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